

자원유형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본 연구는 다양한 자원 유형이 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유형별(무상사업, 유상사업)로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규의 구체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법규의 적합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예산배분 적절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는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예산과정 효율성과 인력전문성이 함께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와 인력전문성이 커지면 두 사업관리 효과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유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규의 구체성,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 부처간 협업 및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무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규의 적합성, 예산배분 적절성,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ODA 사업담당 인력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제어 : 공적개발원조, 자원유형, 사업관리 성과, 무상사업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luckpink@naver.com)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규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6)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ODA 규모는 순지출 기준으로 약 19억 달러(원화: 2조 1,619억 원)로서 이는 한국의 ODA가 제도화된 1987년의 규모에 비해 약 80배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및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합하여 UN, OECD, G20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지속하여 추진 중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9).

공적개발원조 사업유형에는 수원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원조체계를 갖추면서 두 사업의 관리체계를 분리·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분리·운영 방식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효과성 논의를 유발하였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그 동안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은 분절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들간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당위론적으로 사업통합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관부처의 차이로 인해 사업들간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사업의 효과성, 즉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에서 관리측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KOICA ‘시민참여평가단’ 공적개발원조 사업 평가에 의하면, ODA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봉사 경험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 인턴 경력에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연합뉴스, 2018.12.5.일자 기사).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공적개발원조의 당위성과 필요성, 공적개발원조의 분야별 사례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주로 통합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원유형별로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을 구분하고 관리의 효과성 측면을 분석한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특히 자원기반적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측면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기반적 관점에서 다양한 자원유형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관리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원유형이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자원기반 이론과 공적개발원조간 관계 연구를 심화시키고, 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원조사업 유형

국제사회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과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해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형성과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제개발협력 중 한 부분으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증

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역 및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과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자금은 개발자원(Resources for Development)에 속하며, 개발자원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을 의미한다. 이 때,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지원방법에 따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가 있으며 양자간 원조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어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제공된다(표 1). 무상원조는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을 의미하며, 예산지원, 프로젝트 원조, 기술협력, 부채경감, 식량지원, 인도적 지원, NGO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 개발 인식 증진비용 유형으로 제공된다. 이에 비해 유상원조는 수원국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현금 및 현물의 이전으로, 차관, 소액차관, 보증, 협조융자, 차관지원비의 형태로 지원되며 프로젝트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이도석, 2017).

국제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자금 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2017년 ODA 총 지출액에서 양자간 원조는 평균 약 71%, 다자간 원조는 29%를 차지하였으며, 무상원조는 평균 96%, 유상원조는 4% 가량으로 나타났다. 양·다자간 원조 배분형태로 볼 때, 양자원조의 규모가 다자원조보다 평균 2.4배 정도 더 많았으며, 양자원조 내에서 무상원조 비율은 유상원조에 비해 평균 21.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1〉 개발재원의 형태와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 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출처 : KOICA 홈페이지(2019)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담당기관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분되며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사업 주관기관으로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담당하며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시행사항을 점검한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주요 시행기관으로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며, KOICA 이외의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상원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본 자원유형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은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자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략적 관리 분야에서 자원기반 관점으로 조직 생존, 성장

및 전반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등 자원의 능력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Barney, 1991; Peteraf, 1993; Wernerfelt, 1984). 자원기반이론은 민간 부문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Hoopes, Madsen, Walker, 2003). 자원기반이론의 핵심은 경쟁력이 있고 가치있는 타 조직에서 완전하게 모방할 수 없는 자원은 지속적으로 조직간 성과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전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은 조직이 새로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양한 자원이 조직성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원기반 관점에서는 많은 자원이 조직의 성장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illiamson, 1999: 1098). 즉 조직자원은 조직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Carmeli & Tishler, 2004; Hansen, Perry & Reese, 2004: 1279).

조직성가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공공행정과 공공경영 연구에서 핵심주제로 다루어졌다(Rainey, 2003). 자원기반 관점은 전략적 관리 연구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 중 하나로서, 조직 성장, 생존 및 전반적인 성과를 위한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arney, 1991). 최근에 Bryson, Ackermann & Eden(2007: 714)은 공공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기반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기반 이론에 의하면, 자원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이다(Bryson, Ackermann & Eden, 2007: 704). 또한 자원은 조직이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을 의미하며(Ray, Barney & Muhanna, 2004: 24), 조직 특유의 역량도 자원에 해당한다. 즉, 자원에 조직이 통제하는 모든 자산과 기능, 조직 프로세스, 조직 특성, 정보, 지식 등이 포함되며 조직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 활용전략을 수립·집행한다(Barney, 1991: 101).

이러한 자원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먼저 Bozeman & Straussman(1990: 47)은 자원을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조직 구조로, Rainey & Steinbauer(1999)는 재정적 자원,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으로, Fry,

Stoner & Hattwick(2004)은 사람, 물리적 자료, 금융 자산 및 정보로, Russo & Fouts(1997)는 물리적 자산 및 기술, 인적 자원 및 조직 능력, 무형의 평판 및 정치적 통찰력으로, Hansen, Perry & Reese(2004)는 Penrose(1959)에 의거하여 생산 자원(목표 달성에 필요)과 관리 자원(생산 자원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으로, Soo-Young Lee & Andrew B. Whitford(2012)는 관리(구조) 자원,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물리적 자원, 정치 자원, 평판 자원으로 자원을 분류 및 설명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양한 자원유형과 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 효과성의 관계 및 이러한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공적개발원조 사업성과 등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반론적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현재(2014)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제성과 분석 :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중심으로’, 주해연(2012)의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윤수재·조태준(2017)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임동완(2013)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사전평가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계수(2017)의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황윤기(2017)의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가별 효율성 분석’ 연구, 최영출·김학실(2018)의 ‘OECD국가들의 ODA 효과성 영향 결합 조건 분석’ 연구 등이 존재한다.

둘째, 분야별 또는 사례별로 공적개발원조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먼저 분야별 연구에는 변상규(2014)의 ‘AHP를 이용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지표 연구 : 산업자원협력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세익(2008)의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와 협력에 관한 연구’, 나중선(2018)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해외 작은 도서관 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성하(2019)의 ‘스포츠공적개발원조 ‘Dream Together’ 사

업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박진수(2017)의 ‘국기원의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탐색’, 유병일·윤보은(2014a)의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평가와 성과 제고 방안’, 최태선(2017)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 의료기기 원조 사례 중심으로’, 강민지(2017)의 ‘공적개발원조(ODA)분야 IT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이태호(2019)의 ‘공적개발원조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김계형(2016)의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윤지현(2010)의 ‘한국의 개발도상국 도시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 등이 있다.

그리고 사례별 연구에는 정동원(2008)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기여도 평가’, 정홍교(2013)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연구 :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원(2009)의 ‘ODA(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특정 지역의 사례를 연구한 경우에는 김영우(2012)의 ‘현장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 : 아제르바이잔 KOICA-IOM 카흐리즈 수자원시스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유병일·윤보은(2014b)의 ‘한국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 핀란드,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전략 비교를 바탕으로-’, 이미정·송효진·이선중(2013)의 ‘한국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 : 몽골과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에이에이아웅(2018)의 ‘공적개발원조로서의 새마을운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 : 미얀마 시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평가 또는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다수였다(장지현, 2019). 반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와 다양한 자원들의 역할 등을 연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수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ODA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ODA 사업의 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자원유형들을 중심으로 관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색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을 보완,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의 집행체계가 다른 점에 주목하여 사업유형별 주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력전문성이 자원들과 결합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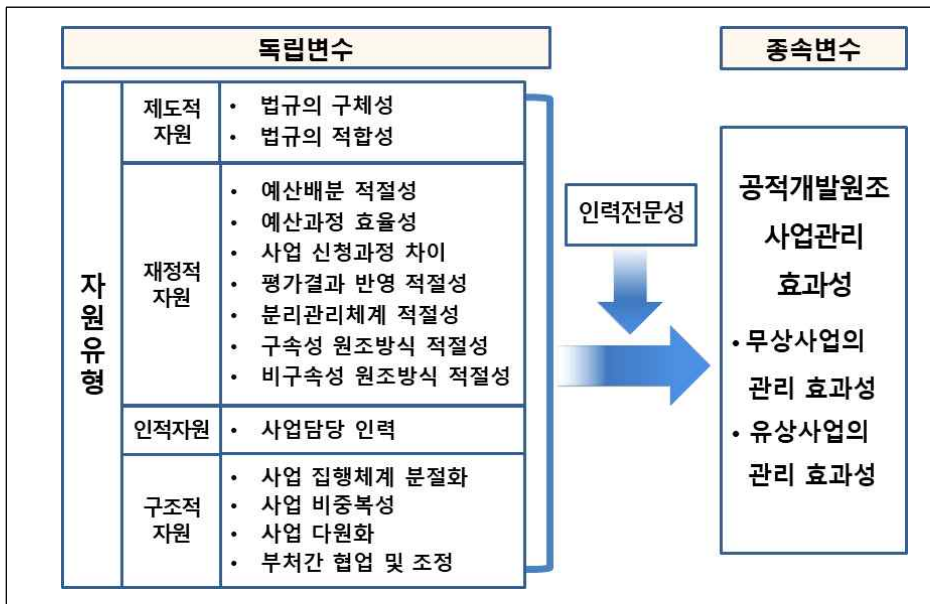
1. 분석 틀

본 연구는 다양한 자원 유형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이들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에 의하면 자원과 역량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Barney, 1991).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다양한 자원과 역량은 사업의 관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관리효과성을 높이면서 사업성과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ODA 사업은 수원국의 상환의 무 유무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주체가 사업을 주관·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효과성으로 설정하고, 수원국의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이도석, 2017)으로 구분하여 2개 사업의 관리효과성으로 구성한다. 또한 독립변수인 자원유형은 Bozeman & Straussman(1990: 47) 등의 논의에 기반하여 제도적 자원, 재정적 자원, 인적자원, 구조적 자원으로 세분화하고, 각 자원유형별 세부항목은 조직행위, 조직적 절차로 표현되는 역량(Rungtusanatham et al., 2003)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은 사업담당인력을 통해 사업에 활용되므로 인적자원의 전문성은 자원이 사업관리에 활용될 때 촉매역할 등 관리효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유형과 관리효과성 관계의 조절변수로 ODA 사업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설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틀



2. 주요 변수 및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변수와 측정지표들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효과성은 사업 주관기관이 해당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자원유형은 조직이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Ray, Barney & Muhanna, 2004)으로 제도적 자원, 재정적 자원, 인적자원, 구조적 자원의 4가지 유형으로 그룹화하였다(Bozeman

& Straussman, 1990; Hansen, Perry & Reese, 2004). 또한, 각 자원유형의 세부항목은 자원관리능력, 업무 조정절차, 운영절차 등으로 규정되는 역량 (Peng et al., 2008)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제도적 자원은 법규의 구체성과 법규의 적합성으로 구성하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측정한다. 그리고 재정적 자원은 예산배분 적절성, 예산과정 효율성, 사업 선정과정 차이,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분리관리 체계 적절성,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비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으로 구성하며, 역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측정한다. 또한 인적자원은 ODA 사업담당 인력이 충분한 정도를 나타내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구조적 자원은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사업 비중복성, 사업 다원화, 부처간 협업 및 조정으로 설정하여 5점 척도인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인력전문성은 ‘ODA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계측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자료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도 ‘ODA 사업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동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본 자료는 ODA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 관리체계의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세부항목으로 법규, 예산, 관리체계, 사업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자료의 전체 조사대상은 200명(공무원 100명, 외부전문가 100명)으로 남성 57%, 여성 43%로 구성되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중앙행정기관 31.0%, 공공기관 51.0%, 지자체 2.0%, 단체·협회·학회 16.0%의 비중을 보여, ODA 사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자료의 분석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원유형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절효과를 통해 인력전문성이 두 변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함이다.

〈표 2〉 주요 변수와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사업유형별 관리효과성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		
독립 변수	자원유형	제도적 자원	법규의 구체성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법규의 적합성	
		재정적 자원	예산배분 적절성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예산과정 효율성	
			사업 선정과정 차이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분리관리체계 적절성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비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인적자원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구조적 자원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사업 비중복성	
			사업 다원화	
			부처간 협업 및 조정	
조절 변수	인력전문성	ODA 사업담당 인력의 전문성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IV. 분석결과

1. 자원유형과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 분석

자원유형과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표 3). 이 때, 자원은 제도, 재정, 인력, 구조로 세분화하였으며,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자원유형이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

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것이다. 이 경우 제도적 자원에서 법규의 구체성($t=2.079$, $P<.05$)과 재정적 자원에서 예산배분 적절성($t=5.661$, $P<.01$), 구조적 자원에서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t=3.802$, $P<.01$) 및 조절변수인 인력 전문성($t=3.404$, $P<.01$)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 자원에서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t=-1.743$, $P<.10$)과 인적자원인 사업 담당 인력 충분성($t=-2.577$, $P<.05$), 구조적 자원에서 사업다원화($t=-1.952$, $P<.10$)는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 자원유형과 인력전문성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 때, 재정적 자원에서 예산배분 적절성($t=4.869$, $P<.01$), 인적자원에서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t=-2.184$, $P<.05$), 구조적 자원에서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t=4.438$, $P<.01$) 및 조절변수인 인력전문성($t=3.102$, $P<.01$)은 모두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대해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제도적 자원 중 법규의 적합성($t=1.902$, $P<.01$)은 새로이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제도적 자원 중 법규의 구체성과 재정적 자원 중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구조적 자원에서 사업다원화는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분리한 결과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는 구조적 자원 중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t=1.972$, $P<.10$)가 인력전문성과 결합하여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정적 자원 중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t=-1.872$, $P<.10$)은 인력전문성과 결합하여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원유형이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B	t	B	t
독립	자원	제도적	법규의 구체성	0.187	2.079**	0.119	1.288

변수	유형	자원	법규의 적합성	0.103	1.335	0.150	1.902*		
		재정적 자원	예산배분 적절성	0.550	5.661***	0.484	4.869***		
			예산과정 효율성	0.025	0.322	-0.007	-0.083		
			사업 선정과정 차이	-0.096	-1.511	-0.093	-1.442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0.113	-1.743*	-0.062	-0.894		
			분리관리체계 적절성	0.094	1.339	0.065	0.905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031	-0.442	-0.049	-0.691		
			비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022	-0.321	0.022	0.323		
		인적 자원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	-0.154	-2.577**	-0.135	-2.184**		
		구조적 자원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0.263	3.802***	0.329	4.438***		
			사업 비중복성	-0.044	-0.684	-0.061	-0.883		
			사업 다원화	-0.128	-1.952*	-0.102	-1.527		
			부처간 협업 및 조정	0.037	0.529	0.017	0.221		
조절 변수	인력전문성	ODA 사업담당 인력 전문성	0.214	3.404***	0.198	3.102***			
상호 작용 항	자원 유형 × 인력 전문 성	제도적 자원	법규의 구체성			-0.184	-1.427		
			법규의 적합성			0.001	0.007		
		재정적 자원	예산배분 적절성			-0.059	-0.449		
			예산과정 효율성			-0.043	-0.447		
			사업 선정과정 차이			-0.060	-0.617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0.095	1.154		
			분리관리체계 적절성			0.117	1.349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176	-1.872*		
			비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009	-0.086		
		인적자 원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			-0.020	-0.268		
		구조적 자원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0.209	1.972*		
			사업 비중복성			0.057	0.694		
			사업 다원화			-0.034	-0.442		
			부처간 협업 및 조정			-0.003	-0.035		
		(상수)				3.072***		3.076***	
		R ²				0.520		0.579	
adj-R ²				0.481		0.507			
F값 변화량(유의확률)				13.276***		0.507*			

주1: p<0.10*, p<0.05**, p<0.01***

2. 자원유형과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 분석

자원유형과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자원유형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경우 제도적 자원에서 법규의 구체성($t=1.767$, $P<.10$)과 재정적 자원에서 사업 선정과정 차이($t=2.68$, $P<.01$), 분리관리체계 적절성($t=3.751$, $P<.01$), 구조적 자원에서 부처간 협업 및 조정($t=3.522$, $P<.01$), 조절변수인 인력전문성($t=3.126$, $P<.01$)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모형 2는 모형 1에 자원유형과 인력전문성이 상호작용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 때, 제도적 자원에서 법규의 구체성($t=2.048$, $P<.05$)과 재정적 자원에서 사업 선정과정 차이($t=2.639$, $P<.01$), 분리관리체계 적절성($t=3.539$, $P<.01$), 구조적 자원에서 부처간 협업 및 조정($t=3.311$, $P<.01$), 조절변수인 인력전문성($t=2.296$, $P<.05$)은 모두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대해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는 재정적 자원 중 예산과정 효율성($t=2.065$, $P<.05$)과 구조적 자원 중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t=2.018$, $P<.05$)가 인력전문성과 결합하여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조적 자원 중 사업 다원화($t=-1.958$, $P<.10$)는 인력전문성과 결합하여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원유형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B	t	B	t
독립 변수	자원 유형	제도적 자원	법규의 구체성	0.151	1.767*	0.181	2.048**
			법규의 적합성	0.014	0.194	-0.003	-0.045
		재정적	예산배분 적절성	0.088	0.949	0.062	0.656

		자원	예산과정 효율성	0.014	0.197	-0.001	-0.014
			사업 선정과정 차이	0.163	2.68***	0.162	2.639***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0.046	0.748	0.086	1.305
			분리관리체계 적절성	0.250	3.751***	0.244	3.539***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033	-0.492	-0.065	-0.962
			비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038	-0.592	-0.025	-0.391
		인적자원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	-0.062	-1.096	-0.029	-0.492
			구조적 자원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0.027	0.402	0.023
		사업 비중복성		-0.055	-0.899	-0.046	-0.698
		사업 다원화		0.008	0.122	0.012	0.183
		부처간 협업 및 조정		0.236	3.522***	0.236	3.311***
조절 변수	인력전문성	ODA 사업담당 인력 전문성	0.187	3.126***	0.139	2.296**	
상호 작용 항	자원 유형 X 인력 전문성	제도적 자원	법규의 구체성			-0.136	-1.108
			법규의 적합성			-0.021	-0.224
		재정적 자원	예산배분 적절성			-0.200	-1.588
			예산과정 효율성			0.188	2.065**
			사업 선정과정 차이			0.117	1.256
			평가결과 반영 적절성			-0.019	-0.238
			분리관리체계 적절성			0.063	0.764
			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004	-0.048
			비구속성 원조방식 적절성			-0.156	-1.628
		인적자원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			0.055	0.760
		구조적 자원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0.204	2.018**
			사업 비중복성			0.031	0.395
			사업 다원화			-0.145	-1.958*
			부처간 협업 및 조정			0.077	0.920
(상수)				3.102***		3.065***	
R ²				0.475		0.538	
adj-R ²				0.432		0.459	
F값 변화량(유의확률)				11.087***		1.652*	

주1: p<0.10*, p<0.05**, p<0.01***

3. 분석적 합의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유형과 사업별 관리효과성의 관계 및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인력전문성의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자원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법규의 구체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법규의 적합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이 ODA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상사업에 대한 관리에 도움을 주어 관리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유상사업은 5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평가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될수록 사업평가를 비롯한 사업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ODA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무상사업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어 관리효과성이 높아진다. 무상사업의 평가에는 5대 평가기준 외에도 만족도 조사가 주요 평가도구로 사용되는 등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어려워 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무상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계획 수립·시행, 지도·감독,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지침을 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재정적 자원에서는 예산배분 적절성이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무상사업은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기 어렵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사업관리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인 재정사업과 달리 ODA분야의 사업은 재원의 출처와 용처가 서로 달라 이를 고려한 사업 선정과정이 필요하다(이도석, 2017). 사업선정의 차이는 채무국에게 상환의무를 부가하는 유상사업 관리에서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상사업은 무상사업과 달리 금융적 기법이 사용되므로 관련분야 전문성이 뛰어난 기재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분리형 예산관리체계가 사업관리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을 나타낸다.

셋째, 인적자원인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무상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유형이 다양하여 각 기관의 성격과 분야,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업무와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담당인력이 적절한 역할배분 없이 증가한다면 무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관리효율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구조적 자원 중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는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무상사업은 상환의무 없이 비대가성으로 제공되고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어 사업선정과 관리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무상사업은 이러한 사업성격에 따라 집행체계가 통합될 경우 효율성 약화, 관료화,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업 집행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관리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상사업은 각 정부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및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중복 등을 방지하여 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도석, 2017).

다섯째, 조절변수인 인력전문성은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최근에 ODA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현상과 일치한다. 즉 사업규모의 증대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많을수록 사업성격에 맞게 관리되고 사업 효과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조절변수인 인력전문성과 자원유형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과정 효율성과 인력전문성이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ODA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면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예산과정이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유상사업은 수원국의 상황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과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관리하기 위해 인력의 전문성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축성 원조방식 적절성이 높고 인력전문성이 커지면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무상사업은 기술, 식량 등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축성 원조방식이 적합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 때 사업담당자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여지가 작으므로 전문적인 인력이 사업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가 크면서 인력전문성이 높아지면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 사업 집행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데 이 경우 사업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해당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사용하여 사업분리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관리효과성으로 연계됨을 보여준다.

넷째, 사업다원화가 커지고 인력전문성이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ODA 사업은 다양한 기관이 수행하면서 사업 중복성과 사업다원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유상사업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사업의 다원화보다 효과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요소가 서로 상충된다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자원 유형이 공적개발지원 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적개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제도적 자원 중 법규의 구체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법규의 적합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재정적 자

원 중 예산배분 적절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인적자원인 사업담당 인력 충분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구조적 자원 중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는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인력전문성은 두 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예산과정 효율성과 인력전문성이 함께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구축성 원조방식 적절성과 인력전문성이 커지면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여덟째,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와 인력전문성이 커지면 두 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아홉째, 사업다원화가 커지고 인력전문성이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ODA 사업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 중에서 범규의 적합성, 예산배분 적절성,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인력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둘째,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원 중 범규의 구체성,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 부처간 협업 및 조정, 인력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전문성이 자원과 유상사업 관리의 효과성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ODA 사업을 단년제 예산체제가 아닌 다년간 예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 사업은 사후효과성 조사 등을 통해 장기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이도석, 2017). 또한, 기관들은 사업발굴, 집행, 평가 단계에서 전략과 사업간 연계강화 및 전략에 따른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는 인력전문성과 결합시 유상·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분절화된 사업 집행체계 하에서는 인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ODA 사업담당 인력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각 분야별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지식을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계획화에 전문가 그룹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관리·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 한계가 존재하여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기대효과와 통합하여 운영할 때 사업관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실증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사업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연구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둘째, 동태적 측면에서 사업유형별 관리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7년 단년도 자료에 기반하여 사업관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원요인들을 알아본 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원들의 영향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ODA 사업관리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지(2017). “공적개발원조(ODA)분야 IT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형(2016).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하(2019). “스포츠공적개발원조 ‘Dream Together’ 사업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우(2012). 「현장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 : 아제르바이잔 KOICA-IOM 카흐리즈 수자원시스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 나중선(2018).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해외 작은도서관 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수(2017). “국기원의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상규(2014). “AHP를 이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지표 연구 : 산업자원협력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7(3), pp.1053-1073.
- 안동원(2009). “ODA(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에이에이아웅(2018). “공적개발원조로서의 새마을운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 : 미얀마 시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병일·윤보은(2014a).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평가와 성과 제고 방안”, 「농촌경제」 37(3), pp.145-164.
- _____ (2014b). “한국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핀란드,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전략 비교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6(1), pp.187-222.
- 윤수재·조태준(2017).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2), pp.27-60.
- 윤지현(2010). “한국의 개발도상국 도시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석(2017).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미정·송효진·이선중(2013). “한국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 : 몽골과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6(2), pp.27-61.
- 이태호(2019). “공적개발원조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재(2014).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제성과 분석 : 규모의 경제와 대체 탄력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8(4), pp.3-24.
- 임동완(2013).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사전평가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22(2), pp.41-70.
- 장지현(2019).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연구경향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1), pp.121-146.
- 정동원(2008).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기여도 평가”, 『아시아연구』 10(3), pp.249-267.
- 정흥교(2013).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연구 :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계수(2017).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 원조 효과성과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해연(2012).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6), pp.141-154.
- 최영출·김학실(2018). “OECD국가들의 ODA 효과성 영향 결합 조건 분석 : QCA분석방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보』 22(3), pp.1-20.
- 최태선(2017).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 의료기기 원조 사례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세억(2008).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와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pp.205-228.

- 황윤기(2017).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가별 효율성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9).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연합뉴스(2018.12.5). “공적개발원조 현장에 전문성 갖춘 인재들을 투입해야”. ODA 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2018.do>). (검색일: 2019. 10. 5.).
- Barney, J. B.(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pp.99 - 120.
- Bozeman, B. & Straussman, J. D.(1990). “Public Management Strategies: Guidelines for Managerial Effectivenes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ryson, J. M., Ackermann, F. & Eden, C.(2007). “Putting the Resource-Based View of Strategy and Distinctive Competencies to Work in Public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4), pp.702 - 17.
- Carmeli, A. & Tishler, A.(2004). “Resources, Capabilities, and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Firms: A Multivariate Analysi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5, pp.299 - 315.
- Fry, F. L., Stoner, C. R. & Hattwick, R. E.(2004). “Business: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NY: Mcgraw-Hill*.
- Hansen, M. H., Perry, L. T. & Reese, C. S.(2004). “A Bayesian Operationalization of the Resource-Based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 pp.1279 - 95.
- Hoopes, D. G., Madsen, T. L. & Walker, G.(2003). “Why Is There a Resource-Based View? Toward a Theory of Competitive Heterogene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0), pp.889 - 902.
- Lee, Soo-Young & Whitford, A. B.(2012). “Assess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Resources on Public Agency Performance : Evidence from the US Federal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3(3), pp.687-712.

- Peng, D. X., Schröder, R. G. & Shah, R.(2008). “Linking Routines to Operations Capabilities: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6(6), pp.730-748.
- Penrose, E. T.(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af, M. A.(1993). “The Cornerstones of Competitive Advantage: A Resource-Based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3), pp.179 - 91.
- Rainey, H. G.(2003).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ainey, H. G. & Steinbauer, P.(1999). “Gallopi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 pp.1 - 32.
- Ray, G., Barney, J. B. & Muhanna, W. A.(2004). “Capabilities, Business Processes, and Competitive Advantage: Choosing the Dependent Variable in Empirical Tests of the Resource-Based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1), pp.23 - 37.
- Rungtusanatham, M., Salvador, F., Forza, C. & Choi, T. Y.(2003). “Supply-Chain Linkages and Operational Performance: A Resource-Based View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and Production Management*, 23(9), pp.1084-1099.
- Russo, M. V. & Fouts, P. A.(1997).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3), pp.534 - 59.
- Wernerfelt, B.(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2), pp.171 - 80.
- Williamson, O. E.(1999). “Strategy Research: Governance and Competence Perspectiv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 pp.1087 - 1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Resource Types on Effectivenes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Managem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expertise*

Choi, Yena**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resource types on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 management by type of busine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manpower expertise in these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adequacy of legislation,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fragmentation of project execution system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free business. And, the specificity of laws and regulations, the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ojects, the adequacy of separate management systems,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and human resources expertis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paid busines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courses should be activated to reinforce the expertise of ODA project personnel.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year budget system and evaluate the long-term effects.

Key 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source Type,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Free Business

투고일: 2019.10.15. | 심사완료일: 2019.11.30. | 게재확정일: 2019.12.01.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

**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luckpink@naver.com)